

공정위, 채무보증해소를 위한 「금융기관장 회의」 개최

— 금융권, 대규모기업집단 과다채무보증 해지 합의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19일(목) 공정거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전윤철(田允喆) 위원장 주재로 은행·증권·보증보험 등 14개 금융기관장 회의를 갖고 중복·과다보증의 해소 등 기업들에 대한 채무보증의 원활한 해소방안을 논의하였다.

계열사간에 거미줄같이 얽혀있는 상호 채무보증은 대규모기업집단의 연쇄도산과 금융기관의 부실화 및 경제위기를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한계·부실기업의 퇴출도 어렵게 하고 있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 추진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러한 채무보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는 지난 2월 14일 금년 4월 1일부터 신규 채무보증을 전면 금지하고 기존의 채무보증은 원칙적으로 2000년 3월말까지 해소토록 조치하고 금년 3월말까지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축소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 공정거래법을 확정·발표하였으며, 은행감독원도 지난 1월 26일 「금융감독기관규정」을 개정하여 금융기관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과도하게 채무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여 제재키로 하여 과다한 채무보증에 대해 공정위의 방침과 행보를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보증은 기업과 금융기관의 상호작용에 의해 관행화된 만큼 이의 원활한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의 해소 노력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특히 통상적인 채권확보 수준을 넘어 두 개 이상의 계열사로부터 받은 중복보증, 담보와 함께 채무보증을 받은 중첩보증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해소할 필요성

이 있으므로 동 금융기관장 회의를 통해 채무보증 해소에 대한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게 되었다.

금융권은 동 회의에서 여신금액에 상응하는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열사의 채무보증을 해제하고 2개 이상의 계열사 및 개인이 보증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 또는 1개 계열사 이외의 보증은 해지하며, 구조조정의 촉진을 위해 한계기업과 매각 또는 합병대상 기업과 관련된 채무보증을 우선적으로 해지하기로 했다. 또한 1개 계열사가 보증하고 있는 경우라도 과다한 보증은 원리금 수준인 130%로 축소하는 한편 분할상환 여신에 대한 채무보증금액은 여신 잔액에 따라 축소하며, 기타 재무구조가 건실한 회사에 대해서는 신용대출로 전환하기로 하는 「중복·과다보증 해지원칙」에 대해 합의했다. 동 원칙에 따라 금융권은 우선 중복·과다한 것이 명백한 채무보증은 오는 3월 25일까지 해소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고, 금융기관간 또는 금융기관과 기업간에 협의가 필요한 보증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키로 하였다.

공정위가 자진해지를 요구한 금융기관 보증액은 30개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총여신 25조3,000억원을 초과하는 중복·과다보증분으로 모두 15조1,000억원으로서, 이를 금융기관별로 보면 산업은행이 5조5,800억원, 외환은행 1조9,200억원, 조흥은행 7,700억원, 제일은행 7,500억원, 장기신용은행 6,500억원, 한국보증보험이 6,100억원 등이다.

《 30대 기업집단의 중복·과다보증 현황 》

◆ 개 요

('98. 2월말 현재, 조원)

구 분	여신(A)	보 증 금 액			과다보증액 (B-A)	보증비율 (B/A)
		채무보증	담보제공	소계(B)		
전 체	25.3	33.5	6.9	40.4	15.1	159%
· 중첩	6.2	9.5	6.9	16.4	10.2	262%
· 중복	0.9	2.3	-	2.3	1.4	267%
· 기타	18.2	21.7	-	21.7	3.5	119%

◆ 주요 금융기관별 중복·과다보증 현황

('98. 2월말 현재, 억원)

금융기관	여신(a)	보 증 금 액			과다보증액 (b-a)	보증비율 (b/a)
		채무보증액	담보제공액	소계(b)		
산업은행	30,287	50,929	35,210	86,139	55,852	284%
제일은행	9,519	14,606	2,431	17,037	7,518	179%
조흥은행	6,920	13,410	1,272	14,682	7,762	212%
서울은행	3,044	3,914	634	4,548	1,504	149%
장기은행	8,769	11,404	3,915	15,319	6,550	175%
외환은행	33,845	44,163	8,919	53,081	19,236	157%
상업은행	4,983	7,098	2,174	9,272	4,289	186%
하나은행	4,632	6,350	570	6,920	2,288	149%
한일은행	4,340	6,816	712	7,527	3,187	173%
신한은행	2,841	3,214	65	3,279	439	115%
엘지증권	1,715	1,716	-	1,716	1	100%
한불증권	3,789	3,849	-	3,849	60	102%
대한보증	22,951	27,469	188	27,656	4,706	121%
한국보증	32,712	38,813	24	38,841	6,129	119%